

역사·전통 이어 氣茶게 만듭니다



제다 명인을 찾아서

박수근 하동 명인대원 대표

식 품에도 명인(名人)이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호부터 농림부가 운영하는 '전통식품명인'에 지정된 세 명의 제다명인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녹차로는 처음으로 명인에 지정된 하동 명인대원 박수근(62) 대표를 만났다.

'국내 최초의 녹차 명인'. 하동 명인대원 박수근 대표를 지칭하는 말이다. 박씨는 1999년 5월, 명인(제16호 수제녹차)에 선정돼 녹차 분야 명장 1호를 차지했다. 9월 18일 만년 박 대표는 가을차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수제로 녹차를 만드는 차 농가 대부분이 가을, 겨울에는 차를 만들지 않는 것과 달리 박 대표는 그만의 노하우로 계절차를 생산하고 있었다. 가을차는 8월 8일부터 첫잎을 따 만드는 차로 매년 200여 톤 정도 11월 초부터 만드는 입동차는 그보다 더 적은 20~30여 톤 정도 생산된다. 양은 적지만 계절에 따른 차의 맛과 향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박 대표의 차 인연은 선친으로부터 전수된 차 제조(製法)를 배운 선친은

매년 정성스레 만든 차를 제사 때마다 올렸다. 지금처럼 여린 잎으로 만든 고급 차는 아니었지만, 신선한 차맛은 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조금씩 만들어 친인척들에게만 선물로 주곤 하던 녹차를 상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다. 이후 1998년 제18회 '차의 날 기념 차문화대회'에서 '올해의 명차'로 지정되며 이어 2001년에는 국제명차품평대회에서 국제명차 영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2002년에도 '경상남도 우수관광 기념품 공모전'에서 은상, '한국전통식품 Best 5 선발대회'에서 음료·다류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좋은 녹차는 고유의 향이 진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쓰거나 팔은맛이 없어야 합니다. 명인대원에서 생산하는 차는 아무리 오래 우리도 쓰지 않고, 10년 이상 우려도

은은한 향이 우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곡우 전, 1500여 평의 차밭에서 나는 소량의 첫잎으로 만드는 고급 녹차 '명품'은 한해 20~30여 톤 정도 밖에 생산되지 않는다. 가마솥에서 아홉 번 튀고 아홉 번 비벼 말리는 '구중구포' 기법으로 만들며, 산삼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그가 차를 만들 때 염두에 두는 또 하나는 바로 '기(氣)'다. "차의 기를 받은 사람이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차를 만들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틈만 나면 차실에 버티고 앉아 참선을 하기도 했다. "7~8년 정도 참선을 하고 나니 차의 기운을 조금은 알 수 있겠더군요. 문리가 터졌다고나 할까요? 그때부터 좋은 차밭에서 나는 열은 산삼향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 녹차를 수출하고 있는 박 대표는 녹차뿐 아니라 우리 천연 향토를 이용한 팍과 비누, 썬나무 잎을 이용한 차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단순히 몸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녹차를 마신다면 녹차의 진정한 효능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묘하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12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하동 차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털어냈다. 하동=여수령 기자



"우리 전통문화가 잊혀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박수근 대표는 "지자체에서 하동 차문화를 지원 육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박재원 기자

녹차명장 1호, 중국 일본에 차 수출 1500여명 차발서 계절차 소량 생산 황토비누·썬나무 등 개발에도 앞장

한 효능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묘하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12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하동 차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털어냈다. 하동=여수령 기자



인류 문화속의 茶

10. 신비의 음료
⑨ 커피 수호 '데페사'
얼마 전 음식 문화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를 방문했다. 조사 연구의 성격상 계속해서 먹은 음식이 느끼한 터라 일행들은 커피를 마시고 싶어했다. 물론 식사 때 마다 나오는 중국차가 있었지만, 우리 입안을 개운하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양한 종류의 차로 가득 차 있는 중국의 거리에서 커피숍에 들어간 것은 문화적 충동이 가져온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다. 실내는 약간 칙칙했고 실내장식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에는 못미치지 않으나 그런대로 현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커피 종류도 다양하고 값 또한 우리 돈 3000원 정도

공급 균일화로 가격안정 등 효과 가져왔으나 출하시기 조절은 재정·심리적 권력의 온상 돼

도로 다른 물가에 비해 비싼 편이지만, 커피숍 안에는 젊은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렇게 세계인의 대중 음료가 되니까, 또 세계 어디에서나 거의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기까지 커피는 많은 질곡의 과정을 거쳐 왔다. 특히 세계의 커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브라질의 초기 농장주들은 대량생산을 위해 울창하던 숲을 벌목하고 불을 질러 땅을 개간했다. 그러나 이런 대량 생산 체제에 따른 과잉 생산은 가격 폭락, 농장주의 파산 등 국가 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자율 시장경제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해결책으로 국가가 차관을 도입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커피 가격을 조절하기도 했다. 1914년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브라질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전쟁에 개입, 독일 증기선을 나포(拿捕)하기도 했다. 국가 경제의 90%가 커피 수출에 의존하고 있던 브라질로서 중립이란 어려운 문제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 유럽의 소비 증가로 잠시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듯했지만 유



브라질의 대형 커피 농장

폭락을 예방하였고 저장된 커피양은 비밀이 유지되어 더 이상 투기꾼들은 커피 가격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데페사'는 재정적·심리적으로 권력의 중심이 되었다. 한편 농장주들은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려 재정적인 안정을 취하려 했지만 고품질을 생산할 수 없는 조건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증대는 질을 저하시켜 주변 생산국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의 질 좋은 커피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브라질의 커피는 또 다른 위기에 처한다. 1931년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산된 커피를 불 태워 수급을 조절한다. 커피를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브라질에서는 국가 재정의 풍요를 위해 커피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가격이 높아져서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온다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브라질의 커피정책은 이러한 경제 원리를 응용하여 커피를 태우는 의식을 치른 후 다시 커피의 왕국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강진군, 이한영 생가 복원 기념관·다도체험장 등



전남 강진군이 국내 최초의 차상품인 '백운옥판차(白雲玉板茶)'를 제조·판매한 이한영(1868~1956) 선생의 생가(生家)를 복원하고, 기념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2007년까지 15억원을 들여 생가 주변 3천 평을 매입한 뒤 생가복원과 각종 유품과 제다(製茶)기구 등을 전시할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광객들이 직접 차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다도 체험장과 가공·전시 판매장 등도 신속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강진군 이윤재 관광개발 팀장은 "강진은 예로부터 차문화의 역사 깊은 곳이다. 강진을 명실공히 전국제일의 차 문화 성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월남사지(月南寺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한영 선생의 생가는 월남사지 정비 계획에 따라 월말 위기에 처했으나, 차인들과 후손들의 노력으로 이전·복원되게 됐다. 이한영 선생은 100여년 전 강진 월출산 자락에서 '백운옥판차'와 '금동월산차' 등의 상표를 부착한 녹차를 생산, 일제 강점기에 사라져 가던 국산차의 전통과 명맥을 지켜 온 차인이다. 그가 개발한 상표 고무인포장지 등은 현재 후손에 의해 보존되고 있으며 작업장 건물도 아직 남아 있다. 한편 강진군은 이한영 선생 생가를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해 놓은 상태다. 여수령 기자

보이차 전문점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외 40여가지의 차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茶道 1-12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다도 과일호를 판매합니다
문의전화 | 02)722-7777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기초교리집 과도 특별신청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요집
기초교리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압도 크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구성 : 과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4, 8219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